

# 화순 소외계층 없는 '복지 1번지' 만든다

###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등 저소득층 211억 지원

### 장애인 복지관 건립·경로당 생활 중심권 육성

화순군이 소외계층 없는 '복지 1번지'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임대아파트·단독주택·무주택 세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다문화가정 취업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군이 복지시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는 '노인복지'다.

이를 위해 군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기초 노령연금 지원, 노인 장수수당 지원, 장기요양보험 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총 6개 분야에 사업비 211억여원을 투입한다.

무엇보다 군은 경로당을 마을생활 중심권으로 지정해 경로당 부식 지원 사업, 경로당 환경개선도우미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최근 다문화 가정 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군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전통 음식 체험과 문화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군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권역별로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도 군의 역점 시책 중 하나다.

군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해 주목된다. 군은 지난해 사단법인 화순사랑, 주식회사 샘터, 목포한국병원 등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를 희망하는 3개 기업과 함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홍익식 군수는 "복지정책을 군정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화사한 스타티스, 설레는 여성** 입춘을 시샘하는 강추위속에서 강진군 군동면 시설하우스에서 '스타티스'(Statis) 수확이 한창이다.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스타티스'는 저온에서도 잘 자라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최근 재배농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강진 미래성장 이끌 현안 22건 발굴

### 다산 청렴교육관 건립 등 6일 정책협서 최종 결정

강진군이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현안사업 발굴에 나섰다.

지난해 12월말에 출범한 군 TF팀은 일반행정, 농업,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 4개 분야에서 20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군민 소득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현안사업 발굴에 진력해 왔다.

TF팀에서 발굴 제시한 신규 현안사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7건 ▲국·도비 건의사업 10건 ▲선거 후보자 공약사업으로 선점할 정책사업 5건 등 모두 22건이다. 군은 TF팀에서 발굴한 사업을 정책협의하고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31일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세부사업으로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다산 청렴교육관'(K-Clean Center) 건립·'남도 문화답사 자전거길' 조성 등 6건, 농업 분야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립·강진군 신마 연안항 배후부지 조성·'아스파라거스 지역 특산물 단지' 조성 등 8건이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강진만 철새탐방로 개설사업·청자촌 국민 여가오트캠핑장 조성 등 4건의 사업 계획안이 제시됐다.

군은 22건의 사업을 오는 6일 정책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최종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강진 명품쌀 '프리미엄 호평' 급신장

### '러브미' 인증 2개월만에 2억3500만원 매출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브랜드로 선정돼 지난해 '러브미(미)' 인증을 획득한 강진 '프리미엄 호평'의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농림수산식품부의 '러브미' 인증을 받고 나서 높은 가격에도 2개월여 만에 20kg 4051포(2억 35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같은 기간의 20kg 2982포(1억 7300만원)보다 35.8% 증가했다.

'프리미엄 호평'은 청자골 강진의 맑은 물과 청정 토양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적 영농지도를 받아 생산

산하고 있다. 또 강진군농협 통합RPC(미곡종합처리장)에서 수매 건조 후 별도 보관을 통해 최상의 미질을 유지하고, 최신 정미시설에서 씨리기와 이물질 등을 제거한 96% 이상 무결점 완전미로 생산한다.

단백질 함량이 적고 밥이 찰지며, 쌀 자체의 구수한 맛이 일품이어서 소비자들로부터 최고의 쌀로 평가받고 있다.

강진군 김경식 유통팀장은 "전국 최고의 쌀로 인정받은 '프리미엄 호평 쌀'의 재배면적을 늘리고 미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강진에 수리취·쑥 등 웰빙 야생초 단지

### 군,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강진군이 수리취, 쑥 등 웰빙 야생초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강진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보리수매 폐지로 인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 농가에 힘을 실어주고자 틈새 고부가가치 작물을 발굴, 육성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사라져가는 전통 세시풍속 먹을거리 발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수리취, 쑥 등 야생초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수리취와 쑥은 단오날 농경 중심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힘든 노동과 더위 시작되기 전 마지막 흥을 즐기 위해 떡을 해먹었던 약초로 최근 웰빙 추세에 맞추어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특히 웰빙 야생초는 쌀에 비해 소독이 3~4배(1000m 기준) 높은데다 고령농가 및 부녀자가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연중 3~4회 재배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군은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추후 성과 분석 후 재배면적을 늘려갈 계획이다. 또 생산된 야생초를 이용해 떡, 분말, 비누 등 기능성 가공식품도 개발해 강진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군은 수리취, 쑥 등 야생초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ha당 논은 최대 500만 원, 밭은 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조 군수 권한대행은 "미백위주의 농업을 탈피, 새로운 틈새 작물을 발굴 육성해야 농가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장흥 슬로시티협의회 전통문화 계승 12지장곳 교육

장흥 슬로시티협의회(위원장 장찬용)는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슬로시티 명인 발굴·육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2지장곳'(농악놀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슬로시티 지역내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인을 찾아 명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후인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며, 지난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주간 장평면 우산리 녹색농촌체험관에서 20여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은 '12지장곳' 명인을 비롯해 쫓공예 명인, 청국장 제조 명인을 발굴, 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백우삼 '12지장곳' 명인은 "장흥의 전통농악 계승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 "아이디어 발굴 부자 군 만들겠다"

### 취임 100일 맞는 황숙주 순창군수



"이제 순창발전을 위한 진검 승부가 시작될 것입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황숙주 순창군수는 설연휴를 끝내고 군 시책에 접목할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주요 역점사업 추진 분야에 대한 국내 선진지 방문을 계획했다.

이어 황 군수는 지난 28일 관원분야 및 회랑공무원과 함께 직접 버스투어에 나섰다.

이날 황군수와 관계 공무원 32명은 친환경농업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무주군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충남 홍성군 문당환경농업마을을 다녀왔다.

황 군수는 "순천을 방문해 20만명의 넓은 정원이 조성되면 관광객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했다"며 "우리 군도 시책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깨어있는 의식과 많이 보고 접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버스투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황 군수는 오는 9일까지 읍·면 연초방문을 통해 올해 군정방향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통행정'을 이룰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종전과 다르게 보고자료를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화면을 보면서 황군수가 직접 설명을 함으로써 높은 관심도와 호응을 보였다.

군은 올 총예산 2200억원 가운데 농업농촌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43억이나 늘린 544억원으로 편성해 둔다는 농업, 잡사는 농촌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기업유치의 예산을 늘리고 누구나 일하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기반 확충과, 장류·장수의 지속적인 발전,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황 군수는 "부지런하고 겸손하게 순창을 만들면 부자군으로 우뚝서게 된다(근검순창, 부군굴기)는 사자성어를 올해 화두로 삼아 혼혈을 다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군산~제주 위그선 상반기 취항 불투명

### 시험운항 등 절차 늦어져... 제주 계류장도 확보 못해

군산~제주간 상업용 위그선(50인승)의 상반기 취항이 불투명한 상태다. 위그선 제조업체인 원십테크놀러지는 올 3월 취항 목표를 밝혔지만, 진행중인 시험운항과 운항허가 등의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11월 취항 계획을 공식으로 밝혔지만 지난해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 지연되면서 취항시기를 올 3월로 다시 늦췄다. 그러나 또다시 올 3월 취항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위그선의 상반기 취항 가능성이 낮아졌다.

운항허가권을 가진 군산 해양항만

청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일반 시운전을 몇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도 안전성에 대한 영국 로이드사의 인증과정과 시험운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3월까지 맞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십테크놀러지 측은 군산 쪽의 계류장을 비운항 인근에 설치중이지만 제주 애월항 쪽의 계류장 후보지는 아직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십테크놀러지 관계자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부 여러 기관에서 안전운항에 대한 규제가 많아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3월께 시험운항 등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추진이 빨라질 것이며 늦어도 6월에는 취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그선 운영사인 오션익스프레스는 위그선이 완공되면 군산 비운항~제주시 애월항 노선(320km)에 50인승 1척을 투입해 하루 3차례 운항할 예정이다. 소요시간은 1시간 50분, 요금은 8만9000원(잠정)이다.

'바다의 KTX'로 불리는 위그선은 물 위를 1~5m 높이에서 시속 180~250km로 순항하는 새로운 해상교통수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정읍시 서울에 대학생 장학숙 마련

정읍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을 위한 장학숙소가 마련된다.

정읍시는 "서울 왕십리역 인근에 대학생 공동학사를 마련, 2013년 하반기부터 지역 출신의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숙으로 활용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서울 성동구 마장동 테니스부지에 추진하는 '대학생 공동학사' 사업에 총남 태안군, 경복 영양군 등 4곳과 함께 참여했다.

성동구가 공동학사 부지를 제공하고 정읍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건축비 일부를 부담한다. 대신 정읍시는 30년 동안 40실(80명)의 공동학사를 이용하게 된다.

공동학사(총 150실)는 2월에 착공해 오는 2014년 완공하며 숙식시설, 독서실, 체력단련실, 다목적 공간 등을 갖춘다. 공동학사 입학학생들은 월 15만~20만원만 내면 돼 경제적 부담이 적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성기자 parkss@

## 지리산 눈꽃축제 가족단위 관광객 북적

###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 톡톡

올해 처음으로 남원 지리산 바래봉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눈꽃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1월 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남원 허브 벨리와 바래봉 일원에서 열리는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에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더욱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2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했다.

눈꽃축제장에는 눈썰매장과 열음 썰매장, 눈싸움장, 빙벽체험장이 마련돼 있어 빙벽등반을 하고 전통 썰매를 타며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또 풍이치와 연날리기와 같은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따끈한 군고구마



도 까먹을 수 있다.

특히 겨울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본격적으로 만끽하고 싶다면 눈꽃이 곱게 피어난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트레킹을 할 수도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사장은 주변의 관광여건, 남원의 전통문화가 함

께 어우러져 겨울 캠핑지로 경쟁력과 매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남원이 사계절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역시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뉴스 브리핑

### 남원·무주·순창·고창·부안군 도시가스 공급

남원시와 무주·순창·고창·부안군에 올해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한국가스공사와 가스 공급회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공급관리소 설치, 배관 공사를 늦어도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6월 부안군을 시작으로 이들 지역에 차례로 가스를 공급한다.

하지만 이들 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만9000가구에만 우선 공급될 면(面) 지역은 3~4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내에는 1984년 전주시를 시작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임실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익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삼심아웃 도입

익산시가 음주운전을 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된 직원을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음주운전 삼심아웃 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징계양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상태에서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처음에는 견책 또는 감봉 조치하고, 2차례 적발 시에는 정직과 강등 조치를, 3차례 적발 시에는 가장없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군산시 농특산물 홍보갤러리 건립 추진

군산시는 농특산물을 판매 홍보할 수 있는 '농특산물 홍보갤러리'를 지을 계획이다. 이 건물은 군산시 농업이 3억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시내 잠미동 일대 부지 2000㎡에 건립된다. 공사비는 총 41억원으로 오는 6월말 준공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부지인 근에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옛 조선은행 등을 활용한 근대문화 창작벨트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광객 유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김제시 지평선 아카데미 클래식과 행복마당

김제시는 2월 들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지평선 아카데미'를 클래식과 행복을 주제로 다채롭게 진행한다. 2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의 삶'(유원열 콘서트)이 대표 주체강연에 이어 9일 '클래식 오디션'(진희숙

음악 갈무리)을 비롯해 ▲16일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한근대 서울과학기술대학원 교수) ▲'우리소리 사랑이야기'(마당놀이 인강문화재 국악인 김성녀) 등이 펼쳐진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